

강남구, 학교로 찾아가는 '마음건강학교' 운영

✎ 권오경 기자 | Ⓜ 승인 2026.03.09 08:15

청소년 정서 문제 조기 발견 지원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심'이 직접 학교 방문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심리 프로그램 확대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를 학교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3월부터 '찾아가는 마음건강학교'를 새롭게 운영한다.



지난해 사이심이 학교 현장에서 진행한 중독예방교육 장면. [사진=강남구청]

이번 사업은 청소년 전문심리서비스기관인 강남구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킴'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과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사이킴'은 센터 방문을 통해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주 생활공간인 학교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센터 방문이 어려웠던 학생들의 거리·시간 부담을 줄이고 학교 안에서 보다 촘촘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강남구는 관내 초·중·고교의 약 20% 참여를 목표로 학교 신청을 받아 참여 학교를 모집하며, 올해는 초등학교 7개교 이상, 중학교 5개교 이상, 고등학교 4개교 이상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재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급 단위 또는 소그룹 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생 대상 교육은 발달 단계에 맞춘 주제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가 주제 1개를 선택해 1회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우울·불안 예방 등 마음건강 교육 △자살예방교육 △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중학교 프로그램은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 형성을 목표로 소그룹 4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직접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발표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해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도록 설계됐다.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청소년 마음의 언어, 함께 배워요'를 통해 자녀의 감정 신호를 이해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위험 신호를 읽는 힘, 부모의 감시가 아닌 관심'에서는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다룬다.

또한 '기질로 읽는 우리 아이의 마음지도'에서는 심리검사 등을 활용해 자녀의 기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소통과 지지 방법을 찾도록 돕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청소년기 마음건강은 조기 예방과 적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기관이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과 보호자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